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공감능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박미화
혜전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The Effect of Empath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in Non-face-to-face Classes

Mihwa Park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Hyejeon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간호대학생 165명이며, 2021년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문조사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공감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공감능력과 학습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설명력은 22.7 %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주제어 : 공감능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습몰입, 비대면 수업,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s among empath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in non-face-to-face classes caused by a Pandemics. The subjects were 165 nursing students, analyzed the collected data using SPSS WIN 21.0. According to the study, empath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learning flow were a significant static correlation. The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affect learning flow are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xplanatory ability is 22.7%. Based on this results, it is proposed to prepare a plan to advance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a non-face-to-face classes.

Key Words : Empath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Learning flow, Non-face-to-face classes , Nursing student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2년째 지속되고 있는 COVID-19로 인한 대유행(pandemic: 이하 팬데믹) 상황으로 그동안 특수 대학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지던 비대면 수업이 전국의 대학으로 확산되어 시행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비대면 수업의 갑작스런 전환으로 여러 교육기관들과 학생들은 국가정책과 대학의 수업방법 및 수업 참여형태에 대하여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학생들의 수업참여정도 및 학습성과와 학습의 질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1].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의 학생들의 학습성과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이는 학습자의 학습 몰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1]. 그러나 현재의 팬데믹 상황은 그동안 익숙했던 대면 수업환경을 단시간에 비대면으로 전환시킴으로서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와 학습 동기를 저하시키고 그로 인해 수업의 질과 수업 만족도를 하락시켰으며 이러한 상황들은 학생들의 불만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2]. 교수자들은 비대면 수업환경에서도 대면 수업과 같은 수업의 질을 확보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학습자들 역시 대면수업과 같은 학습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학습몰입은 학습자가 수업환경에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수업에 흥미를 느끼며 그 수업 안으로 완전히 집중할 때 경험하는 최적의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1]. 대학생의 학습 몰입은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그로인해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교육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이는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모두 확인되었다[3-7]. 학습자가 교수자와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적극적인 소통을 필요로 하며 수업 분위기의 형성과 학습 목표의 명확한 제시 등으로 학습몰입 정도가 달라지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향상시킬 때 학습자와 교수자가 기대하는 학습성과 달성이 가능하다[8]. 이에 성공적인 비대면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학습몰입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요인을 찾고 그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감능력이란 타인의 상황에서 그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점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하며 이는 협력, 창의성, 빠른 적응력과 함께 팬데믹 시대의 교육을 위한 핵심 가치이다[9]. 또한 공감능력은 미래 인재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그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0]. 특히 간호사에게 있어서의 공감능력은 대상자와의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대상자의 문제 파악과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으로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개별화된 간호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준다[11]. 이러한 높은 공감능력은 감염 병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대상자에게 안도감을 주고 불안을 낮추게 할 수 있는 간호사의 중요한 역량이다[9]. 더불어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쳐 대학생활의 만족도 및 전공만족도, 임상 실습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1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와 관련된 부분에서 다양한 과제를 현명하게 판단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의 신념과 자신감을 말한다[13]. 간호대학생들은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많지 않다고 생각되어 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대한 자신감 부족, 취업 후 이직에 대한 문제들로 최근 간호대학생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간호대학생들의 전공 만족도 및 임상 실습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불어 진로에 대한 확신을 높여주고 있음이 보고되었다[14-17]. 이러한 연구 결과로 간호대학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예비 간호사로서의 역량 향상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생활 만족도, 진로 준비를 위한 탐색활동과 진로 결정 수준 예측[14-17]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간호대학생의 학습성과 향상의 중요한 요소인 학습몰입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는 미진하다. 특히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에 의한 비대면 수업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습몰입의 수준과 변수들의 상관성을 조사하고 공감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학습 몰입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 되었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간호학생들의 학습몰입, 공감능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경험한 C도의 H대학과 K도의 Y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수는 G*power 3.1.9.4 프로그램[18]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기준으로 중간크기의 효과크기 .15,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95, 독립변수 4개로 산출한 결과 최소 적정표본 크기는 129명으로 산출되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172명에게 자료를 수집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학습몰입

학습몰입을 측정하기 위하여 Seok[19]의 몰입척도를 Yang[20]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몰입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Yang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0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778이었다.

2.3.2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Davis[21]가 제작한 대인관계 반응 지수(ERI)를 Park[22]이 수정 보완한 공감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개의 하위요인(상상하기, 관점취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 총 28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9문항은 역 문항으로 역 환산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Park[22] 연구에서 .80,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80이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상상하기 .871, 관점취하기 .894, 공감적 관심 .931, 개인적 고통 .971이었다.

2.3.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을 위해 CDMSES-S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Short Form)을 사용하였다. 이는 Betz 등[23]이 개발하였고 Leel[24]가 번안한 도구로 총 25문항, 하위요인 4개(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로 이뤄져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Lee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5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98이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목표선택 .991, 직업정보 .999, 문제해결 .996, 미래계획 .998이었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1년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를 받은 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172부를 회수 하였으나 응답이 부실한 7부를 제외하고 165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5 연구의 윤리적 고려

연구자와 관련이 없는 대학에서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 참여의 자발성, 상시적 철회 가능성, 자료의 익명성 그리고 비밀보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작성한 자료는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리고 별도의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으며 동의한 연구자에 대하여 자가 보고식 설문지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

2.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공감능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습몰입의 분석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 하였으며, 공감능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습몰입에 대한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t-test, ANOVA를 활

용하여 분석하였다. 공감능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습몰입의 관련성은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으며,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평균 25.02세이고, 성별은 여성 132명(80.0%)이 더 많았다. 간호학과 선택 동기는 가치 있는 직업 49명(29.7%)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안정적인 직장 47명(28.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과 함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120명(72.7%)으로 기숙사, 하숙 등의 거주 형태보다 많았다. 휴학 경험이나 계획은 없는 경우가 130명(78.2%)이었으며, 전공만족도는 만족하는 학생이 110명(66.7%)으로 가장 많았고, 성격은 혼합형 성격이 81명(49.1%)으로 내향적인 성격 57명(34.5%), 외향적인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65)

Variable	Categories	n(%) M±SD
Age(yr)		25.02±8.99
Gender	Male	33(20.0)
	Female	132(80.0)
Motivation for selecting departments	Employment	47(28.5)
	Valuable profession	49(29.7)
	According to the aptitude	44(26.7)
	Advice of Family and Friend	15(9.1)
	Others	10(6.0)
Residence type	Self (with family)	120(72.7)
	Others(dormitory, boarding house etc.)	44(27.3)
Leave of absence experience and plan	Yes	36(21.8)
	No	130(78.2)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110(66.7)
	Mediocrity	55(33.3)
	Non-satisfaction	0(0)
Characteristics	Extroverted	27(16.4)
	Introverted	57(34.5)
	Mixed	81(49.1)
Non-face-to-face class preference	Live video lessons (Zoom etc.)	7(4.2)
	Non-real-time video lessons	88(53.3)
	Non-real-time learning material class	38(23.0)
	Real/non-real time mixed class	32(19.4)

성격 27명(16.4%)보다 많았다. 비대면 수업의 선호도는 비 실시간 동영상 강의 유형 88명(53.3%), 비 실시간 학습 자료 중심 강의 유형 38명(23.0%), 혼합형 32명(19.4%), 실시간 화상강의 유형 7명(4.2%) 순서였다.

3.2 공감능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습몰입 정도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습몰입 정도는 Table 2와 같다. 공감능력은 평균 3.51±.39점이었고, 공감능력의 하위영역의 평균점수는 상상하기 3.55±.62점, 관점취하기 3.66±.55점, 공감적 관심 3.64±.52점, 개인적 고통 3.19±.62점이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평균 3.69±.48점이었고, 하위영역의 평균점수는 목표선택 3.91±.54점, 직업정보 3.81±.57점, 문제해결 3.39±.90점, 미래계획 3.24±.61점이었다. 또한, 학습몰입은 평균 3.64±.55점이었다.

Table 2. Empath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Learning flow of participant (N=165)

Variables		M±SD
Empathy	Empathy	3.51±.39
	Fantasy scale	3.55±.62
	Taking perspective	3.66±.55
	Empathic concern	3.64±.52
	Personal distress	3.19±.62
CDMSE	CDMSE	3.69±.48
	Goal selection	3.91±.54
	Job information	3.81±.57
	Problem solving	3.39±.90
Learning flow	Future planning	3.24±.61
	Learning flow	3.64±.55

*CDMSE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습몰입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습몰입은 Table 3과 같다. 공감능력은 성별($t=-2.43, p=.016$)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여성의 공감능력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거주유형($t=2.35, p=.020$), 전공만족도($t=2.42, p=.017$), 성격($F=6.03, p=.003$)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자가에서 거주하는 경우, 전공에 대하여 만족하는 경우, 외향적인 성격이 내성적인 성격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몰입은 전공만족도($t=3.15, p=.002$), 성격($F=3.47, p=.033$)에 따라 차

Table 3. Empath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Learning flow according to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N=165)

Variable	Categories	Empathy		CDMSE		Learning flow	
		M±SD	t/F(p)	M±SD	t/F(p)	M±SD	t/F(p)
Gender	Male	3.37±.29	-2.43 (.016)	3.65±.08	-.59 (.555)	3.51±.60	-1.44 (.152)
	Female	3.55±.40		3.70±.47		3.67±.54	
Motivation for selecting departments	Employment	3.44±.36	1.56 (.188)	3.69±.42	1.22 (.305)	3.66±.53	.79 (.536)
	Valuable profession	3.51±.37		3.72±.52		3.72±.57	
	Aptitude	3.62±.38		3.74±.48		3.57±.52	
	Advice of Family/Friend	3.45±.39		3.67±.36		3.49±.54	
	Others	3.42±.56		3.38±.59		3.58±.69	
Residence type	Self (with family)	3.51±.39	-.10 (.922)	3.74±.48	2.35 (.020)	3.66±.56	.79 (.432)
	Others(dormitory etc.)	3.51±.37		3.55±.44		3.58±.53	
Leave of absence experience and plan	Yes	3.50±.38	-.14 (.889)	3.75±.44	.78 (.438)	3.55±.57	-.94 (.347)
	No	3.51±.39		3.68±.49		3.65±.55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3.55±.38	1.79 (.075)	3.75±.46	2.42 (.017)	3.73±.56	3.15 (.002)
	Mediocrity	3.43±.39		3.57±.48		3.45±.49	
Characteristics	Extroverted ^a	3.44±.48	3.07 (.051)	3.89±.40	6.03 (.003)	3.73±.56	3.47 (.033)
	Introverted ^b	3.44±.38		3.54±.46		3.48±.57	
	Mixed ^c	3.59±.35		3.73±.48		3.71±.51	
Non-face-to-face class preference	Live video lessons	3.69±.28	1.87 (.136)	3.98±.65	1.98 (.120)	3.69±.65	1.36 (.258)
	Non-real-time video lessons	3.48±.39		3.68±.46		3.59±.56	
	Non-real-time learning material class	3.45±.42		3.59±.46		3.59±.51	
	Real/non-real time mixed class	3.62±.35		3.79±.47		3.81±.53	

*CDMSE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이가 있었으며, 전공만족도는 만족의 경우, 성격은 내성적 성격보다 혼합적인 성격이 학습몰입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3.4 공감능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습몰입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습몰입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공감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20, p=.010$), 공감능력과 학습몰입($r=.16, p=.04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r=.46,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 of Empath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Learning flow (N=165)

Variable	Empathy	CDMSE	Learning flow
	r(p)		
Empathy	1		
CDMSE	.20(.010)	1	
Learning flow	.16(.043)	.46(<.001)	1

3.5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영향 요인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5와 같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학습몰입, 공감능력, 일반적 특성 중 학습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던 변수인 전공만족도, 성격을 더미변수로 전환 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우선, 회귀분석 기본가정을 검증한 결과는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을 이용한 오차의 자기상관은 1.899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성이 없었고(오차항의 독립성), 독립변수의 공차한계(Tolerance Limit)는 .922~.952로 0.1이상이고, 분산팽창인자(Varicance Inflation Factors, VIF)는 1.050~1.085로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모든 변수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히스토그램과 회귀 표준화 잔차의 P-P도표와 정규분포 표에서 오차의 선형성과 정규성은 확인되었고, 종속변수의 표준화된 잔차와 독립변수의 산포도에서 등분산성도 확인되었는데 이는 특정 분포를 띠지 않고 0을 중심으로 고르게 퍼져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13.03, p<.001$), 더미변수 중에서 성격은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전공만족도는 만족한 간호대학생($B=.17$)이 보통인 간호대학생보다 학습몰입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 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B=.49$)이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증가되었고, 공감능력은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beta=.42$)이었고 더미변수 중 전공만족도($\beta=.15$)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의 더미변수와 2개의 독립변수로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을 22.7% 설명하였다.

Table 5.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N=165)

	B	S.E	β	t	p
(constant)	1.49	.42		3.58	<.001
Empathy ability	.06	.10	.04	.54	.590
CDMSE	.49	.08	.42	5.93	<.001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17	.08	.15	2.18	.039
Characteristics(mixed)	.08	.08	.07	1.03	.305
$R^2=.246$, Adj $R^2=.227$, $F(p)=13.03(<.001)$					

4. 논의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에 의한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습몰입의 수준과 변수들의 상관성을 조사하고 공감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학습몰입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 되었다.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 3.51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도구로 평가한 간호사 대상의 연구결과인 3.30점보다 높으나[9]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인 3.58점[25], 3.51점[26]과 유사한 보통수준으로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공감능력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개인적 고통이 3.19점으로 가장 낮고 관점 취하기가 3.66점으로 가장 높았다. 대상자의 부정적인 경험과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는 개인적 고통은 다른 하위 영역과는 다르게 민감하게 느낄수록 심리적 안정감이 낮아지고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성향으로[9,21] 해석되므로 점수가 낮은 경우 어떠한 상황 및 관계에서 오는 개인적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서관리의 노력이 적게 소모됨을 알 수 있다[12].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간호대

학생 대상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반복 확인 할 필요가 있다. 공감 능력은 전공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는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25,26]와 같은 결과이다. 또한 공감능력은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이는 선행연구[25]서도 일치한 결과로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화 성향이 크며 친화력이 좋음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역량에서 공감 능력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19] 최근 간호대학 남학생의 정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반영해서 성별의 특성이 고려된 공감능력 증진의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실제적인 적용이 간호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3.69점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3.59점[17], 1학년에서 4학년 전체 대상의 3.046점[14] 보다 높은 결과이다. 3학년과 4학년은 처음 시작되는 임상실습과 취업에 대한 부담 등이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반면 본 연구 대상인 2학년은 아직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기 이전이므로 진로결정에 대한 효능감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취업 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부적 상관성이 있음을[17]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은 목표선택이 3.91점으로 가장 높으며 미래계획 3.24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Ahn[2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취업 등의 이유로 간호학과를 선택하여 어렵게 진학하고 그에 만족하고 있으나 실제 간호사로서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부족함을 시사한다. 학생들이 미래 간호사로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선배와의 만남이나 기관탐방 등 다양한 취업 기관의 실무 경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가족과 함께 자가 환경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동일한 특성으로 조사한 연구는 없으나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지지적 관계인 경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았던 결과를[14] 참고해 볼 때, 친밀한 사람의 지지적 관계형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학생 주변의 다양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자의 학습몰입은 5점 만점에 3.64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전공 만족도와 성격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습몰입 정도는 온라인 수업환경의 일반 대학생

3.75점과[20] 다른 도구 이긴 하나 온라인 수업환경의 의대생 대상 연구 4.03점[4]보다 낮은 반면 간호 대학교 4학년 학생의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의 조사 연구 3.27점 [3] 보다는 높은 결과이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은 학업스트레스로 인하여 타 전공자에 비해 학습 몰입 정도가 낮다[5]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은 학년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학습몰입 점수가 낮음을 보고한[3]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본 연구의 대상자는 취업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은 2학년으로 타 학년에 비하여 학습 몰입의 정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몰입은 연구 대상자의 성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내성적인 성격보다 혼합형인 성격이 학습몰입 정도가 높았다. 간호대학생의 성격특성에서 외향성과 학습몰입이 양의 상관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7] 내성적인 성격특성을 가진 학생들의 학습몰입이 다른 성격특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성격의 특성은 명확히 구분 짓기 어려우며 성장하면서 유동성의 특성이 있어서 더욱 구체적인 변수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공감능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학습몰입은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공감능력이 좋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습 몰입 정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간호영역에서 공감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습몰입의 세 변수를 함께 비교한 연구들이 미진하여 직접비교는 어려우나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공감능력이 높은 아이일수록 학습몰입정도가 높았고[28]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성이 있음이 확인되어 [6,29] 본 연구 결과를 지지 하고 있다.

회귀분석결과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에 의해 향상될 수 있으며 이는 22.7%의 설명력을 보였다. Song 등[6]의 일반대학생에 대한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와 학습몰입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학업적 효능감을 상승 시킴으로써[29] 학습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공만족도 또한 다양한 수업환경에서 학습몰입의 중요한 변인이 확인되어져 왔다[1,3,4].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예기치 못하게 다양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대학 수업환경에서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고 개발해가기 위한 교수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2년 동

안 지속되어져오는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대학생들의 비대면 수업환경에 대한 교수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쌍방의 다양한 소통 방안 마련은 수시로 변하는 불안정한 수업환경의 적응을 높이고[8] 전공 만족도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며 이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몰입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이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감이 학습몰입에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된[30] 연구과 상이한 결과이다. 학습몰입이 학습자와 교수자간의 활발한 소통과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8] 고려할 때 비대면 수업환경에 의해 학습자와 교수자간 소통 및 상호작용의 부족함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파악이 되나 이는 후속연구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간호대학생들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고자 진행되었다. 유래 없는 초유의 수업환경 변화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모두 당혹스러워하는 현 시점에서 간호대학생이 느끼는 다양한 학업 스트레스 속에서도 학습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습몰입 향상을 위한 변인을 찾고자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됨으로서 일반화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학습몰입 향상을 위한 다양한 수업방안 마련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상황에서 두 개 도시 간호대학생 165명을 대상으로 공감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 되었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습몰입은 보통수준이었다. 공감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공감능력과 학습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습몰입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학습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알고 이러한 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J. M. Lim, S. H. Kim, M. J. Baek & K. H. Kim. (2021).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Learning flow, Self-Directed Learning, and Learning Outcomes on Uncontacted Online Class Satisfa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4), 393-401.
DOI : 10.14400/JDC.2021.19.4.393
- [2] J. Y. Kim. (2021, May, 25). 75 minute class, *All 20 minute recordings...I want to take a leave of absence because of money*. Maeil Business Newspaper.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5/504235/>
- [3] J. G. Lee, W. J. Kim & J. K. Lee.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commi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who gave Non-face-to-face Online lectur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11), 412-419.
DOI : 10.5762/KAIS.2020.21.11.412
- [4] S. J. Jeon & H. H. Yoo. (2020).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Learning Flow, Self-Directedness and Learner Satisfaction of Medical Students in Online Learning Environmen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8), 65-74.
DOI : 10.5392/JKCA.2020.20.08.065
- [5] Y. S. Kim. (2018). Academic stress, Daytime Sleepiness, Depression and Learning flow in Nursing Students. *Asia 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5), 867-883.
DOI : 10.21742/ajmahs.2018.05.64
- [6] Y. J. Song & G. P. Cho. (2015).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Learning Flow on Thei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4), 355-374.
- [7] S. Jeong & J. H. Han. (2019).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elf-leadership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5(4), 393-404.
DOI : 10.5977/jkasne.2019.25.4.393
- [8] E. J. Kim. (2015). Examining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for Learning Engagement and Satisfac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16(3), 107-129.
DOI : 10.15753/aje.2015.09.16.3.107
- [9] I. K. Han. (2021).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Empathy Abilities and Nursing Competence of Nurses Caring for Patients with COVID-19*. Master's thesis. Kongju University. Kongju.
- [10] S. J. Hong & J. C. Park.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ic Ability and Performance on MOT :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Firm` Relational Performance. *Journal of Korea Service Management Society*, 17(3), 45-66.
DOI : 10.15706/jksms.2016.17.3.003
- [11] S. Brunero, S. Lamont, & M. Coates. (2010). A review of Empathy Education in Nursing. *Nursing Inquiry*, 17(1), 65-74.
DOI : 10.1111/j.1440-1800.2009.00482.x
- [12] Y. H. Hwang & S. J. Park. (2020). The Effects of Empathy and Self concept on Problem Solving: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of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6(4), 348-356.
DOI : 10.5977/jkasne.2020.26.4.348
- [13] K. M. Taylor & N. E. Betz.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DOI : 10.1016/0001-8791(83)90006-4
- [14] H. S. Hyun & Y. Kim. (2018). Moderating Effect of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4(1), 29-38.
DOI : 10.5977/jkasne.2018.24.1.29
- [15] J. S. Jung, M. J. Jeong & I. Y. Yoo. (2014).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 27-36
DOI : 10.5977/JKASNE.2014.20.1.27
- [16] N. Kim & Y. Ko. (2020).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1), 211-218.
DOI : 10.14400/JDC.2020.18.1.211
- [17] M. Chae. (2019). Ego Resili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Job Seeking Stress of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4), 229-238.
DOI : 10.14400/JDC.2019.17.4.229
- [18] Faul, E. Erdfelder, A. G. Lang & A. Buchner.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 175-191.
DOI: 10.3758/BF03193146
- [19] I. B. Seok. (2007). *The learning flow study: Scale-Character-Condition-Involvement*.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20] S. Yang. (2010). *The Influence of Cyber-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on in Cyber-Communities upon Their Sense of Social Presence and Flow in Learning*.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21] M. H. Davis.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Catalogue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100.

- [22] S H. Park. (1997).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Moonumsa. Yongin.
- [23] N. E. Betz, K. L. Klein & K. M. Taylor.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DOI : 10.1177/106907279600400103
- [24] E. K. Lee. (2001).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efficacy upon the Career Development*.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25] H. Kim & M. Yi. (2015). Factors Influencing Empathy in Nursing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2), 237-245.
DOI : 10.5977/jkasne.2015.21.2.237
- [26] E. Kim. (2018). Relationship of Anxiety, Empathy, Ego-resilience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8(8), 326-337.
DOI :10.5392/JKCA.2018.18.08.326
- [27] M. Ahn. (2019).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Military Duty Planning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Mal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5(1), 93-102.
DOI : 10.5977/jkasne.2019.25.1.93
- [28] M. O. Yeo., (2011). *The relationships of self-efficacy and empathy to flow in children's learning*.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Yongin.
- [29] K. Kim, G. Lee. (2020).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 among Self-Directed Learning, Learning Flow, Academic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Key Competencies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8(4), 117-143.
DOI : 10.18230/tjye.2020.28.4.117
- [30] M. S. Chung. (2014). Relations on Self-esteem,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Reinforcing Competence in Communica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 332-340.
DOI : 10.5977/jkasne.2014.20.2.332

박 미 화(Mihwa Park)

[중학원]



- 2005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간호학석사)
- 2012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2018년 2월 : 청암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혜전대학교 간호

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윤리, 환자안전
- E-Mail : diamon8231@gmail.com